

■ 실직자 자녀들의 '희망 발표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쌍둥이인 정다은(12·계림초 5년)·우 리·집 재매가 생애 첫 무대에 올랐다. 21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복지회관에서 열린 실직 가정과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이 부모에게 희망 노래를 들려주는 '해맑은 늘푸른 아이들의 발표회' 무대였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공부방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가사를 외우고 수화 공연을 연습했지만 막상 무대에 서니 떨리기만 했다. 이들 자매가 가수 인순이의 노래 '거위의 꿈'에 맞춰 수화 율동을 선보이자 객석 여기저기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4년 전 직장을 잃은 아빠(45) 대신, 일을 하는 엄마(40)를 위해 자매는 손짓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노동실업광주센터'(센터장 정항자)는 지

난 2002년부터 지산동 '해맑은 공부방'과 산수동 '늘푸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부모가 직장을 잃거나 일을 찾아 집을 떠나, 수업이 끝나도 마땅히 갈 곳 없던

지산 20여 일 동안 아이들이 공연에 쓸 뜻에 알록달록 오린 색종이 장식을 붙이고, 노래·춤·수화·영어 연극 등을 연습했다. 새벽이면 집을 나서는데 맞팔이 부모를 위해 임찬

노동실업 광주센터 운영 공부방 58명

연극·율동 객석 부모 모처럼 '웃음꽃'

58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일 6명의 공부방 선생님들로부터 한글·한자·영어를 배우고, 해마다 12월이면 부모를 위해 '희망 공연'을 준비한다. 실직과 가난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빠·엄마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꽃을 피우주기 위해서다.

희(13·장원초고 6년)군은 지난 6개월간 손이 아프도록 드럼을 두들겼다. 부모와 떨어져 고모집에서 살고 있는 이화랑(9·계림초 2년)군 등 1~2학년생 7명이 크리스마스 캐럴 '올면 안돼'에 맞춰 앙증맞은 춤을 추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해맑은 공부방'과 '늘푸른 공부방' 어린이들이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복지회관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엄마·아빠를 위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어젯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들려주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많았다.

딸 김셋별(10·동산초고 3년)의 공연을 본 이점순(36)씨는 “맞팔이를 하면서 힘든 날

도 많았는데 딸의 노래를 들으니 봄 눈 녹듯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정항자(여·54)센터장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타일이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390) 김종두



“심사 없이 감사 재임용 거부는 무효”

광주지법 판결

대학 법인이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재직인사들을 재임용에서 모두 제외하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1일 전남 H대학교 전(前) 전임강사 정모(48)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탈락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이며, 법인은 정씨에게 임금과 위로금 등 5천3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조항

이 신설된 지 4년여 만에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재임용 탈락교수가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여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된 옛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관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S학원은 1999년 8월 당시 H대 전임강사였던 정씨 등 전임강사 39명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자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 통지서만을 보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랑의 인공 신장실’ 건립 무산 위기

일부 병원 반발 ... 광주시·전남도 지원 유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신장투석을 쉽게 받지 못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사랑의 인공 신장실’(본소 9월 28일자 20면) 건립 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전남도가 예초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의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원을 미뤘기 때문이다.

2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혈액 인공투석기 32대와 식당 등이 구

비된 ‘사랑의 인공 신장실’을 광주중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어(U-square) 복합문화관’ 3층 건물(595㎡)에 지을 예정이었다.

예초 ‘사랑의 인공 신장실’ 건립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전남도가 각각 1억원씩을 투자하고, 금호그룹 측이 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돌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

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를 들어 1억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사랑의 인공 신장실이 무료로 투석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이때문에 최근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광주시에서 의료법위반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

계자는 “30여 곳에 달하는 투석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의 반발이나 여러 관련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무료 혈액투석을 바꿨던 50여 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전남도와 광주시에 대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년째 투석중인 박종갑(57·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의료법 27조에는 예외조항으로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며 “서울과 부산·대구 등 4개 지역에서도 수 년전부터 무료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위반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and other services.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다

광주·전남 24일 구름 많고 25일 비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하는 연인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성탄절인 25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쪽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거나 흐리겠다”며 “올해도 눈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탄절에도 눈이 내리지 않으면, 광주·전남은 5년 연속 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는 구름이 많이 끼고, 25일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22일에는 오전 한 때 비가 내린 뒤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10mm이다. 휴일인 23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돼 날씨가 하기에 좋겠다. 낮 기온은 전남보다 3~4도가량 떨어진 8도~12도로 예상돼 전남보다 다소 춥겠지만, 아침 기온은 전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이다.

한편 21일 오전 광주공항은 짙은 안개로 오전 7시50분 김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8700편 등 4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겨울비 내리는 거리. 겨울비가 내린 21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나체쇼’ 노래방 적발

분점까지 내며 성업 ... 업소들 “너도 나도” 번져

광주에서 노래방 도우미의 신체를 노출을 앞세워 손님 유혹하는 나체쇼(속칭 홀파쇼)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M(53·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지난 2005년 3월 초계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물 1·2층에 600㎡ 규모의 모 노래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팔면서 여성 도우미에게 접대행위를 시켰다. 하지만 어느 노래방처럼 영업 수익이 오르지 않자 노래방 도우미들이 손님 앞에서 웃을

뱃는 나체쇼를 선보였다.

이후 매출은 하루평균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밖에 줄을 설 정도로 손님이 몰려 최근에는 가까운 북구 신안동에 분점을 내고 기다리는 손님들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나체쇼는 인근 노래방까지 번졌다.

M씨는 ‘노래방 퇴폐 영업이 성행하는데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경의 비호 때문 아니냐’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발됐다. 광주 북부경찰 관계자는 “이 노래방은 당초 건물 1층에 노래방을 차려놓고 운영하다 북구청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당하자 다시 2층에 노래방을 내고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해 온 모 노래방 업주 M씨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주차장서 승용차 훔쳐 중학생 5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4·중2)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모(43)씨의 쏘렌토 승용차 문이 잠겨져 있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지난 2004년에는 같은 불상에 대해 모조품으로 감점했다가 올해 감점결과를 뒤집었으며, 협회는 분과 감점위원들의 감점 결의에 따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같은 불상에 대해 모순된 감점증서를 내 준 것으로 확인.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교도소서 66명 성탄절 가석방

성탄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지역 4개 교도소에서 모범 수형자 66명이 가석방된다.

21일 광주지방교정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교도소 22명 ▲목포교도소 14명 ▲순천교도소 23명 ▲장흥교도소 7명 등 66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이들은 수용기간 동안 각종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우수 표창을 받은 수형자들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조품 불상이 100억대 진품 둔갑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1일 1천만원을 받고 수십만원 짜리 모조품 금동불상 2점을 시가 100억 원대의 중국 명나라 시대 작품으로 감정해 준 한국고미술협회 부회장 정모(58)·같은 협회 회원 이모(44)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배임증해 혐의로 구속.

○정씨는 지난 2004년에는 같은 불상에 대해 모조품으로 감점했다가 올해 감점결과를 뒤집었으며, 협회는 분과 감점위원들의 감점 결의에 따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같은 불상에 대해 모순된 감점증서를 내 준 것으로 확인.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December 22nd,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a map of Korea.